

심물경제 불확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③

지금은 위험은 분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신[Balance] 롱숏펀드 랩

2015년 10월 19일 - 4월 20일

2015년 10월 19일 - 4월 20일

2015년 10월 19일 - 4월 20일

2015년 10월 19일 - 4월 20일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15℃/20℃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음력 9월 21일)

"자기가, 말은 안했지만 와이셔츠 다림질 참 힘들어!"

오늘, 아내의 속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와이셔츠 세탁서비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민 반대 53.6%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일반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대’(53.6%) 의견이 조사자들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재의 군복무제를 반대하는 입영대상자들이 현재의 군복무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보다 어려운 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이른바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고, 그 중 ‘반대하는 편’은 27.9%, ‘매우 반대’도 25.7%였다. 반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7.2%, 찬성하는 편 22.2%)는 의견(29.4%)은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잘 모름’은 17.0%.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 울산(17.0% vs 64.2%)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 경북(23.8% vs 61.1%) 광주 전라(25.9% vs 60.3%) 대전 충청 세종(20.4% vs 60.0%) 수도권(37.7% vs 4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14.5% vs 반대 66.2%)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대(26.5% vs 65.2%), 20대(29.0% vs 44.2%), 30대(29.3% vs 42.7%) 순으로 높았다. 한편 40대(찬성

49.1% vs 반대 46.0%)에서는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대부분 정당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17.2% vs 반대 69.3%)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무당층(17.2% vs 58.9%) 국민의당 지지층(32.6% vs 5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의당 지지층(찬성 55.5% vs 반대 30.0%)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5.5%p 우세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2.5% vs 44.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20.7% vs 반대 67.5%)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보층(37.2% vs 53.1%), 중도층(35.3% vs 5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4%) 스마트폰앱(39%) 유선(21%) 무선(26%)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9%)와 유선전화(21%)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7.3%(총 통화 7,225명 중 525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으며,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3%p이다.

박용국기자

NCCK “2017 종교개혁기념대회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기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가 20일 낮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제64회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교회 내 여성참여 보장과 여성할당제 준수를 권고하고 2017년 부활절과 종교개혁기념대회를 준비했다.

먼저 NCCK는 실행위를 통해 “교단에서 NCCK 총대, 실행위원, 프로그램위원을 추천할 시 여성 30%, 청년 20%를 반드시 포함해 파송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현재는 여성 30%, 청년 10%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음)고 지적하고, 이를 회원교단과 소속교회가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17년 ‘부활절맞이’에 대해서, 주제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눅24:6)로 선정함을 알리고,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자료집 발간 ▶부활절맞이 7주간 영적순례 ▶고난주간 ▶한국기독교 부활절 새벽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잡혀 있음을 알렸다. 부활절 새벽예배는 2017년 4월 15일 밤에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종교개혁기념대회에 대해서 NCCK는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기를 원했다. NCCK는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환)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기념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종교개혁의 유산은 기독교 공동의 유산이란 점을 인식하고 여러 교단과 단체들이 연합해 준비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때문에 NCCK는 “전체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는 한국교회개혁과 자성에 관한 목소리를 한 곳에 담아내고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교단이 참여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수 진보로 나뉘어 갈등 구도에 있는 한국교회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동기를 제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하나가 되어가는 성숙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NCCK 실행위에서는 위 안건을 외에도 제65회 총회 준비의 건, 제65회기 사업계획(안), 예산(안), 일정 심의의 건, 헌장 및 헌장세칙 개정의 건, 교회재정 투명성위원회 활동회기 연장의 건 등을 처리했다.

NCCK의 제65회 총회는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터전을 세우리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김규진 기자

朴대통령 “누구라도 불법 저질렀다면 엄정처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미르·K스포르츠 재단 설립과 관련된 최순실씨 의혹에 대해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두 재단이 시작할 때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듬고 속고해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 더 이상 의혹

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시·감독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르츠 재단 및 최순실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저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검찰수사를 통해 최 씨를 포함해 어느 누구의 불법행위라도 드러난다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세규 기자



“제가 행복해서 나눠요”

경기도 분당의 한 제빵전문점 점장인 전순태 씨에게 나눔은 일상이다. ‘자신의 행복’ 때문에 나누는 그의 가게 한 곳에는 거울에만 자선냄비 모금하란 법 없다며 한여름의 ‘자선냄비’ 저금통을 두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관련기사3면 한국구세군 제공

“전통적 이신칭의 복음 대신 행위 강조? 잘못 가르치는

장신대 제14회 종교개혁기념 학술대회, 김철홍 교수 ‘구원론 논란’ 관련 강연

최근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위해 다양한 원인 제시와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직 믿음’ 교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윤리와 도덕을 약화시켰다며 ‘행함’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원의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여전히 루터의 청의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주장들 역시 나오고 있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구원론과 관련된 무게 있는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장신대가 20일 낮 “루터사상과 한국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제14회 종교개혁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철홍 교수(장신대 신약학)는 “루터의 청의론을 둘러싼 논쟁: 루터가 실수한 것인가? 새관점이 실수한 것인가?”란 주제로

보다는 전통적인 청의론이 더 온전함을 주장했다.

김철홍 교수는 ‘바울의 새관점’ 주장을 펼치는 학자 가운데 라이트(N.T.Wright)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그는 라이트가 주장하는 ▶1세기 유대교는 언약적 신율주의 ▶바울의 율법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단지 할례법, 음식법, 안식일법 등을 지키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신실함으로 해석하는 것 ▶칭의를 교회론적으로 보고 구원이 공동체에 가입하는 멤버십과 동일시하는 것 ▶최후의 청의에서 심판의 기준이 전 생애, 즉 순종/행위로 보는 점 등이 “전통적 입장과 다르면서도 수용할 가능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논쟁은 두 개의 거시적 발표하면서, 논란 중에 있는 ‘바울의 새관점’을 화두로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

아니라 거시적 틀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루터의 바울이 해가 새관점의 바울이해보다 더 원래의 바울 청의론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목회 현장의 윤리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으므로 전통적 이신칭의의 복음 대신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목회의 현장 상황에 따라 성경의 본문 해석을 바꿀 수 있고, 그 선택권이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 했다.

그는 “성경 본문이 A를 말하면 아무리 상황이 B라 하더라도 여전히 A를 말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와 신학자의 임무”라 말하고, “만약 그런 논리라면 유대교와 이슬람 같은 율법주의 종교 신자가 가장 윤리적이야 하고, 로마 카톨릭교회 신자, 그 다음으로 영국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신자가 개혁교회 신자보다 더 윤리적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가설은 아직 증명된 바 없고, 인류가 실제 경험으로 깨달은 사실, 즉 ‘인간은 종교, 교파를 초월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김 교수는 “행위심판론이 성도가 악행을 끊고 선행을 하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인다는 것은 사실”이라 밝히고, 다만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 성도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손상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차라리 이신칭의와 은혜 복음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를 강조한 이유일 것”이라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 교수의 발표 외에도 임진섭 박사(한국루터연구센터 원장)가 “한국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본 루터 사상의 몇 가지 특징들”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각각 김선영 교수(실천신대) 최인호 목사(예명교회)가 논찬자로 수고했다.

장신대는 현재 종교개혁499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조은식 기자

“교회 재정,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보고해야”

장신대에서 2016 교회재정세미나 최효운 회계사 강연

2016 교회재정세미나가 “재정언어로 본 교회사역”이라는 주제로 10월 20일 오후 1시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과 교회의 재정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해서

위원장인 최효운 회계사는 재정언어의 공적 책무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는데, 그는 기독교 공동체가 부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효운 회계사는 재정 관리와 교회 재정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 구성원은 교회재정의 수탁자이자 위탁자가 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재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때문에 최 회계사는 교회공동체는 신약성서에 기록된 “너희 착한행실로 하나

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를 주목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재정 공개의 투명성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재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을 때 투명성은 지켜진다고 말하고, 2018년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소득세 납부와 교회 재정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날 교회재정세미나는 기자와 관심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이 참석

했다. 행사를 주도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측은 “앞으로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투명한 교회 재정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사역자의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이내려 기자

[신간소개] ‘30대가 30대에게 쓰는 편지 : 사랑과 결혼편’

کمپەشن 후원자들, 직접 후원의 기쁨 나누고 어린이들 돕는다

세상 스펙에 매달려 사랑과 결혼을 빼앗긴 30대를 향한 30대의 메시지
설교 강단에서 들리지 않는 30대의 사랑/결혼을 편지로 풀어
30대 신자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
를 향하여 띄우는 30대의 편지
혼밥, 혼술, 혼영 시대에 던지는 30대
기독교 청년의 도전장
헬조선 시대 30대에게 주는 사랑과 결
혼의 의미는
이용도(1901~1933) 목사 연구가 정재현
씨, 30대적 생활영성을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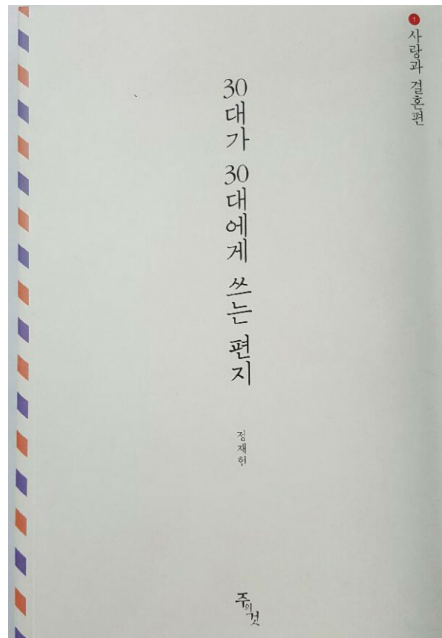
오늘날 30대는 교회의 ‘관심망’ 밖으로 밀려난 듯하다. 그들이 겪는 삶의 근심사
인 사랑, 결혼(또는 독신), 직장 등의 주
제에 대해 설교 강단은 인색하다. 30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생에서 결정적인 그
런 주제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던 교훈들
아래 덮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30대는 시간과 체력이 그리 넉
넉하지 않다. 먹고살려는 발버둥만으로도
충분히 지쳐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30대
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제들에 많
은 관심을 쏟는다면 30대에게 교회는 그
만큼 더 멀게 느껴질 것이다.

교회는 오랜 신앙생활로 잘 다져진 30
대들에게 중요한 봉사들을 맡기려고 한
다. 그러면 가뜰이나 삶이 버거운 30대는
더욱 부담과 거리감을 느낀다. 30대의 피
부에 닿는 주제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을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교회의
‘30대 유실현상’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저자의 문제의식은 출
발했다.

“누가 알아서 말해주기만 기다리지 말
고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저자 정재현(34) 씨는 30대에게 말을
붙이기로 결심하고 성경 앞에 앉았다. 치
열한 생존 경쟁 때문에 뒤로 미루어버렸
던 사랑, 결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증언들을 최대한 수집했다. 그 다음 경험



30대가 30대에게 쓰는 편지
사랑과 결혼편

자들의 증언을 경청했다. 싱글과 커플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는 발견과 통찰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
했다. 이렇게 하여 책은 ‘남’ 이야기가 아
니요 ‘옛’ 이야기도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의 이야기가 되었다.

책에는 사랑에 대한 편지 40통과 결혼
에 대한 편지 40통이 담겨 있다. 편지들
의 제목이 흥미롭다. 연애에 있어서 십자
가를 강조하는 ‘십자가적 사랑을 연애에
적용함’, 아가서와 조선 시조를 병행시키
면서 은혜를 받고자 꾀한 ‘아가서와 조선
시조’가 관심을 끈다.

국어 문법에서 사랑의 감정들을 찾아
낸 ‘국어문법과 사랑노래’, 30대의 사람이
늦은 것이 아니요 더 유리할 수 있음을
호소하는 ‘성숙한 사랑은 30대에 더욱 가
능성 있음’, 그리고 ‘나의 재건축으로서의
결혼’, ‘쇼핑몰 광고와 결혼’, ‘사랑의 유투
비한과 음미’ 등도 눈길을 잡아당긴다.

부부의 신학적 의미를 다룬 편지들도
있다. 부부를 최소 단위의 교회이자, 예멘
에서 있었던 최초의 교회 그리고 새 하
늘과 새 땅에 있을, 그리스도와 성도들

이 신앙신부를 이루는 최후의 교회로 설
명하는 ‘최초의 교회 최소의 교회 최후의
교회’, 부부의 동반자적 의미와 함께 동
역자적 의미를 추구하는 ‘소울 메이트에
서 미션 메이트로’ 등이 그것이다. 신명기,
잠언, 전도서, 에베소서 등이 말하는 결
혼의 의미도 탐구한다.

인생의 3분의 1을 25개국에서 보낸 정
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사회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값 매긴다고 꼬집
는다. 행복이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종류인데, 한국에서는 행복이 숫자로 계
산되지 않느냐고 했다. 정 씨는 이러한
사회를 ‘한국 공장’이라 불렀고 자신을
포함한 현 30대들이 그곳에서 생산되었
다고 말한다.

저자는 편지를 통해 한국 공장에 생명
적 반란을 꾀하자고 했다. 이는 숫자보다
사람이요, 스펙보다 사랑임을 나타내는
투쟁을 하자는 것이라 한다. 이 싸움의
대열에 함께 서 전진할 세날의 반군들을
모집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밝혔다.

정 씨는 앞서 340일간의 유럽 자전거
여행기 〈젊은 날의 발견〉(2006년)을 출간
했다. 또 한국교회가 배출한 결혼한 신
앙가인 이용도(1901~1933) 목사 연구가
로서 〈이용도 목사 평전 : 기독교의 재
출발〉(2014년), 〈이용도 목사 시편 : 주님
이 들어오시는 문〉(2014년), 〈이용도 목사
365 묵상집 : 진리를 드소서〉(2015년), 〈
이용도 목사 이단론 비판 : 주의 것들의
노래〉(2016년) 등을 펴냈다. 〈30대가 30대
에게 쓰는 편지 : 사랑과 결혼편〉은 그의
일곱 번째 저서이다.

정 씨는 30대 중반까지 싱글이었고, 한
때 선교를 위한 독신의 삶을 주장하고
꿈꾸었다. 그러다 〈30대가 30대에게 쓰는
편지 : 사랑과 결혼편〉을 구상, 준비하
면서 사랑과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였다. 책을 쓰면서 사랑에 빠졌고,
책을 출간하면서 결혼에 골인했다. 전예
는 혼자였으나 이제는 함께라면, 이것
이 보기에 심히 좋다고 그는 말했다.

조은식 기자

한국کمپەشن 후원자들로 구성된 일반인
홍보대사(VOC, Voice of Compassion)
들이 오는 29일 용산구 한남동 한국کمپە
션 사옥 2층에서 کمپەشن을 통한 어린이
후원의 기쁨을 알리는 결연행사 ‘나누기
더하기’를 자발적으로 개최한다.

한국کمپەشن 일반인홍보대사(VOC)는 후
원자들이 모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사
랑으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해 목소리 높여 활동하는 한국کمپەشن
후원자 애드보킷 그룹이다. 2007년 말 발
족 이래로 매년 자발적으로 행사를 기획
하고 지인을 초청해 کمپەشن 후원의 기
쁨을 알려왔다. 이번에는 40여 명의 서울지
역 일반인홍보대사(VOC)가 모여 준비했
으며, 가수 제아(브라운아이드걸스) 후원
자와 인도네시아کمپەشن 졸업생도 행사에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나누기 더하기’ 결연행사는 ‘사
랑을 나누면 행복이 더해진다’는 의미를 담
고 있으며, کمپەشن 소개와 관객을 위한
공연 및 토크로 구성되어 있다. 후원자들
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가수 제아
(브라운아이드걸스) 후원자는 토크를 통
해 자신이 느끼는 후원의 기쁨과 کمپەشن
밴드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필리핀 후원
어린이 ‘안드레이’를 만난 후 부모의 마음
으로 작곡한 노래 ‘마마송’을 선보일 예
정이다.

또 서정인 کمپەشن 대표는 کمپەشن의 전
인적 어린이 양육에 대해 소개하며 관객
들에게 کمپەشن을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
이다. 관객들은 인도네시아کمپەشن 졸업생
‘이타’의 간증을 통해 후원의 열매 또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모
두 일반인홍보대사들(VOC)이 직접 진행
할 예정이다.

한국کمپەشن 애드보킷팀 담당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모습이
정말 귀하다”며 “매년 후원자들의 자발적
인 활동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후원자들
만나는 열매가 있었는데, 이번 행사도 기
대가 된다”고 전했다.



제아(브라운아이드걸스) کمپەشن 후원자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کمپەشن 제공

이번 ‘나누기 더하기’ 행사는 오후 2시
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어린이 후
원을 통한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문의: 02-
3668-3516)

한편, 한국کمپەشن 후원자들은 지난 8월
2박3일간 자전거로 제주도를 일주하고 کم
패션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
도록 워터필터를 선물하기 위한 모금행사
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2
월에는 대전·충청지역 후원자들이 올레길
을 걷고 기부하는 모금행사를, 인천지역
후원자들이 지인을 초청해 후원의 기쁨을
소개하는 후원행사를 진행하는 등 کم
패션 후원자들의 크고 작은 자발적인 활동
은 연말까지 활발히 이어질 예정이다.

کمپەشن(Compassion)은 전 세계 26개

국의 가난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1:1
로 결연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지
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양육
하는 국제어린이양육기구이다. 1952년 미
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70만 명 이상
의 어린이들이 양육 받고 있다.

한국کمپەشن은 가난했던 시절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되갚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2003년 설립되었
으며, 약 12만 명의 세계 어린이들이 한
국 후원자들을 통해 양육 받고 있다. 후
원자는 어린이들과 1:1 결연을 통해 한
가족이 되어 어린이의 성장을 지원한다.
(کمپەشن 후원 신청 및 문의: 02-740-1000)
이나라 기자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김혜자 월드비전 원선대사
봉어행 지수

이름 Duamu
국가 케냐

당신의 따뜻한 아들이자
꼭 닮은 아들의 꿈을
후원해주세요.

아동 자세히 보기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Q

2 모바일 앱 mykids.v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vv.or.kr
Q

3인원 후원을 하시면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친화기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전사들 교육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아동인래발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 3만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교육, 교육 및 마을에 혜택을 줍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미래를 넘어 꿈을 키우고 한 마을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나눔요?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빵집 아저씨의 ‘특별한 나눔’

겨울에만 자선냄비 모금하라는 법 없죠 한여름의 ‘자선냄비’ 저금통

경기도 분당의 한 제빵전문점. 이곳 점장인 전승태 씨의 아침은 다른 사람들의 아침보다 조금 더 분주하다. 비가 촉촉히 내리던 지난 8월의 어느 아침, 버스 정류장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이제 막 떠나 보내고 익숙한 손길로 와플을 구워내고 있는 전승태 씨.

같은 시간 전 씨의 매장과 다소 떨어져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에는 우산을 쓴 채 출근길 시민들이 길게 늘어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전 씨의 매장을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이곳 매장 매출이 전국 체인점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러나 이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판매대. 이곳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대를 겨냥한 듯, 따뜻한 원두커피와 와플이 진열되어 있었고, 여기에 다른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눈에 띄었다.



구세군 자선냄비 저금통

한국구세군



전승태 씨가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

한국구세군

시민들은 이곳을 이용하며, 자유롭게 커피를 담아가고, 마음 가는 대로 저금통에 모금을 하고 간다.

■ 등을 돌리고 서있는 사람들

“어느 날 아침, 가게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 보니, 버스 정류장 앞으로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왜 저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왜 나쁜 저들의 등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전승태 씨는 그래서 이들을 돌려 새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서 풍선이라도 터뜨려 볼까? 어떻게하면 저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는 질문을 역으로 던졌다고 한다.

“사실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전 씨가 아침 출근길 커피 나눔을 시작하게 된지도 어느새 1년하고도 반이 넘어간다. 한달 여 전부터는 와플도 시작을 했다. 무료로 나누는 커피와는 달리 와플은 1,000원에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커피만 나눌 때 보다도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찾아 오게 되었다고 한다.

“모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며 단순히 매출만 오르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방점은 나눔쪽에 찍혀 있었다.

특히 커피만 나눌 때보다도 와플을 함께 시작하니 모금액 자체가 달라지더라며 함박 웃음을 짓는 전승태 씨를 보면서 진심이 느껴졌다.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 하나 알아줄 사람 없어보이는 일. 누구보다도 늦게 까지 준비를 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일찍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일. 귀찮고 힘들기까지 할 이런 일을 그는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



나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전승태 씨

한국구세군

“나눔이요?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돌연 전승태 씨가 질문을 던졌다. “제가 왜 나눔과 봉사를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웬지 틀리면 안될 것 같은 질문이다. 몇 번 인가의 오답을 내고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나눔은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요.”

확신에 찬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전 씨는 ‘자신이 행복해야 나눔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 칸막이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따뜻함

이곳의 나눔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

이 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는 버스기사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와플을 함께 나누는 것. 그 방식도 독특하다. 버스 정류장에서 길게 늘어선 줄의 가장 마지막 손님에게 커피와 와플 봉지를 들어 보낸다. 그러면 그 손님이 버스 기사님께 커피와 와플을 전하는 것이다. “요새는 버스마다 운전석에 투명한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볼까 손을 내민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니 당황스럽다.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지기도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겠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전달자는 어느 임산부였어요. 그분도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표정이 무뎠었는데, 그렇게 기사님께 전달이 되다보니 기사님도

많이 당황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칸막이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따뜻함. 바로 거기에 반전의 매력 이 있다. “사실 기사님들도 이곳을 다 보고 가세요. 빠르게 지나치는 것 같으면서도 저기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다 보고 가시거든요. 저기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나누어 주나보다. 아? 그런데 나한테도 가져다 주네? 이거 참 좋다. 이러신다는거죠.” 그렇게 따뜻한, 그리고 특별한 멋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푸근한 빵집 사장님의 미소를 뒤로 하며, 감사한 하루를 다시 열어본다. * 자료제공: 한국구세군 (후원문의 : 02-6364-4072 / 저금통 신청 문의 : 02-6364-4279)

장세규기자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구독문의 070-4352-2480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명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미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티스트 이효제

글:정 아델스워스 | 그림:바버라 매글린톡 | 해설:이효제 | 36쪽 | 14,500원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24-7858 **이마주**

[김만영 칼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 [이선규 칼럼] 변화의 계절



김만영 협동목사
(예수인교회)

예전에는 이민을 때 정착금 없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살기 바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아이들은 사춘기를 거쳐 미국사회에 적응하며 잘 성장해 갔지만 부모세대는 한국사회에 묶여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문화적 차이로 부모 자식간에 가정불화가 확대되어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녀교육서의 고전으로 알려진 〈부모와 아이 사이〉의 저자인 하임 가너트 박사는 책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손님 대하듯 해야 하며 아이들을 개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라고 권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의견 전달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부모로서의 체면을 세우면서 아이들에게는 지시에 따라라고 하며 중간에 말을 끊거나 무시해 버린다.

이러면 자녀들은 속으로 부모와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자녀교육은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본다.

가끔 시간이 나면 함께 점심을 함께 하는 LUNCH TIME 갖기를 권한다. 주중에 한번 시간을 내 함께 식사 시간을 가져보는 거다.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들 자녀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1. 자녀들을 사랑하라(Lov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라. 콩나물이 물만 주면 쑥쑥 잘 자라듯

사랑의 물을 주며 잘자라도록 많은 칭찬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이 토대가 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자녀들에 대한 조건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의 의견을 제시하되 부모가 원하는 지시나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교육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의 잘못이나 불성실함까지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스스로 부모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포용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어찌보면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런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2. 자녀들을 이해하라(Understanding)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라는 의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아이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는 뜻이다. 빌 게이츠가 미국 명문인 하버드대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취직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역시 아버지는 화를 내기보다는 몇날 며칠을 심사숙고한 끝에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줬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떠난다’는 말보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더 믿고 기다렸다”고 〈포천〉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버지는 지금도 통화를 자주 한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일방적 학습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주는 교육법을 택했다.

3. 자녀들에게 주목하라(Notice)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부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다. 자녀들은 다른 가정과 다른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다. 부모는 끝까지 참으며 자녀들에게 주목하고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친구처럼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자녀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덕목은 오직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목하여 끝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 사춘기의 부모들은 반응하지 말고 끝까지 참는 것이 해결책이다.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자녀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들이 무슨 걱정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에 주목을 하되 먼저 부모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부모는 항상 주목해야 한다.

4.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라(Courage)
잔소리하거나 이웃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안된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아이 편을 들거나, 반대로 무조건 아이를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든, 피해를 봤든 마음에 입은 상처를 생각해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다.

5. 자녀들을 도우라(Help)
아이들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도록 한다. 물질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을 할 때도 끝까지 도와줘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다. 도와달라는 자녀의 요구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말고 부모로서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같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써 의인이리라 그 도를 행할 수 있다. 어떤 교육적인 방침이나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것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훈련으로는 사회규범을 지키듯 지킬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 졌다. 다문화센터 앞에는 중학교가 있고 학교 울타리 곁에 울창한 은행나무가 줄을 서 있다.

마침 길을 나서다가 청소하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다. “수고 하십니다.” 간단한 인사를 하자 그 분에게 전해 오는 말 가들이 오는 것이 “끔찍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가 더 끔찍하다는 것이다.

잠시 주고받은 말에서 잎이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한참동안 나무를 바라보아도 싫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낙엽을 치우는 일은 고역이란다. 잠시 가을 낙엽에 대한 상념에 젖어 본다.

가을이 점점 깊어 가면서 나무들은 여름내 입고 있었던 녹색의 잎을 바꾸어 떨어질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옷으로 채색을 하게 된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단풍은 녹색 잎의 변신이며 또한 변화이다. 필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하늘나라는 변화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또한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우거짐은 잠시 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단풍은 화려함으로 나무 가지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있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체념에 젖은 듯 자신이 거름으

로 희생 되는 것, 바로 이 희생으로 나무를 탄실하게 부추겨 주고 튼튼하게 키워 주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 열매를 맺게 하고 몇 겹의 성을 쌓아서 열매를 보호 한다.

바로 이것이다. 단풍의 아름다움으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아름다움이 절정으로 변화 되어 지는 순간에 그 모두를 내려놓고 홀연히 떠나는 것, 가을 나뭇잎의 지혜이다.

이시아 선지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들에 피는 꽃과 같다.” 인생무상을 말하는 것일까. 전도서의 기록을 보자.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라고 설교했다.

유양업님의 시구를 읊어 본다.

물들여 채색 입 아릿따운 풍경화
가을 맞게 갈아입고 반짝 이네 빨강분홍 입에 물고
동지 지켜 노년 새들 갈 바람 타고 살랑 살랑
춤추며 노래내다 하늘이 술 술 그려준
황홀한 색깔 덧입혀 마을 마다 산야다 불이 타네

‘나는 햇빛을 잠시 등 돌리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낙엽이 되지만 나는 거름이 되어 다시 태어나리라’라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하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 본다 .

[아침을 여는 기도] 끝까지 붙잡고 견디어

사람의 하나님!

인내의 덕을 세우겠습니다. 멸시 받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의 인내가 환영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고통이 시작되는 때에 잘 견디내어 이기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때에도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끝까지 참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대면서 속일 때에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니”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바른 신앙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2천 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시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힘들고 아프지만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상이 되었다고 야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식었고 배신을 당했지만 끝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옵소서. 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마 24:13) 좌아 세운 봉우리 험한 계곡 가운데에서 힘이 들 때에 내리막길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

마침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반겨 준다. 손주가 버릇없이 종횡 무진이다. 몇마디 싫은 말을 건네니 아내의 말 ‘이제다 접어 두라’고 한다. 논어의 ‘위정’편에는 공자의 간단명료한 이력서가 기록되어 있다.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목표를 세웠고, 40세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며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었으며, 60세에 듣는 대로 깨달았으며 70세가 되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은 늙어 갈수록 완숙해 진다는 뜻이요, 동시에 사람은 자기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리라.

정면 깨끗하게 늙어 간다는 것은 향기로운 일이다. 그러니 만큼 세상만사에 참견이나 하고 다투거나 반박하며 사는 추한 노인이 아니라 인생 마무리를 잘 구상해 본다. 낙엽의 인생이 되어 보라라고 다짐해 본다.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자기 소유에 집착한다. 명예나 재물, 심지어 지위나 업적에 대해서 마저 사람은 내려놓기를 망설인다.

그러나 자기 소유에 지리리만치 집착할 때 사람은 그 마지막을 향기롭게 마치지 못 할 때가 많다. 지금 한국교회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을의 변화를 꿈꾸어 본다. 변화의 계절과 함께.....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1588-1900

www.epostbank.go.kr